

## 예비치과위생사의 취업에 관한 의식 조사

한수진, 이선미<sup>1</sup>, 임미희<sup>2</sup>

가천의과학대학교 치위생학과, <sup>1</sup>동남보건대학 치위생과, <sup>2</sup>수원여대 치위생과

keyword. 예비치과위생사, 직업, 취업, 취업환경, 치과위생사

책임저자: 한수진

406-799 인천연수구 연수3동 가천의과학대학교 치위생학과

Tel. 032-820-4373 (H.P. 017-284-7868)

E-mail. sjhan@gachon.ac.kr

## 예비치과위생사의 취업에 관한 의식 조사

keyword. 예비치과위생사, 직업, 취업, 취업환경, 치과위생사

### 1. 서론

인간은 누구나 일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 보람된 일을 추구하고 중요한 사회적 활동인 직업을 가지며 또한 직업은 개인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듯 직업은 개인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동시에 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한다<sup>1)</sup>. 이러한 의미에서 장래의 직업인인 학생들에게 개인의 가능성을 탐색, 발견하게 하여 이를 개발시킴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올바르게 계획, 준비, 선택하도록 도와주고 선택된 직업에 잘 적응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sup>2)</sup>.

직업에 대한 가치관은 보수 지향적인 가치관, 기여 지향적인 가치관, 자아실현적인 가치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취업시 어떤 가치관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직장 생활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지며, 직업적 활동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의 향상에 기여할 예비치과위생사들은 취업을 통하여 이웃과 사회에 기여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에 봉사 할 수 있는 기여 지향적인 가치관이 요구되어 진다<sup>3)</sup>.

직업들 중 일부는 전문직(Profession)이라 하여 일반적인 직업들과는 구분되고 있으며<sup>4)</sup>, 최근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모든 분야에서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게 됨에 따라 전문 의료 인력이 필요할 때이다.

치과위생사는 지역 주민과 치과 질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예방치과 처치, 치과진료협조 및 치과경영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며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의 일익을 담당하는 전문직업인이다. 최근 치의학 분야에서도 인간 행복의 한 조건인 구강건강에 있어서 아름다운 치아와 건강한 치아주위조직을 유지함으로써 구강위생 상태를 향상시켜 보다 적극적인 국민건강과 치과의료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치과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전문지식과 기술을 모두 겸비한 전문인으로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더욱 크게 요구되고 있다<sup>5)</sup>.

치위생교육의 목적은 21세기에 대비한 전문직 치과위생사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전문 직업인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소유한 구강보건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sup>6)</sup>. 이러한 치위생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본인에게 맞는 적성을 깨닫고 취업의 가치와 목적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어야 하며, 학교는 교육을 통해서 전공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하며, 또한 교수들은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희망하는 진로를 인식하고 탐색할 후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sup>7)</sup>.

치위생과 학생들은 3·4년간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치고,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하여 본격적인 치과

위생사로 활동을 하게 되며, 취업은 보통 국가시험을 치른 후 졸업 전후의 시기에 이루어진다. 국가시험합격을 기원하며 대기중인 예비치과위생사들은 졸업예정자이면서도 이미 취업을 하였거나 활발하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취업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조사는 치과위생사 면허 국가시험을 치른 예비치과위생사의 취업에 관한 의식을 조사함으로써 전문직업인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소유한 구강보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 2. 구 및 방법

본 조사는 2006년 1월 15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서울, 대전, 부산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한 예비치과위생사 보수교육에 참가한 예비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자기기업식 설문조사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총 289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그 중 분석에 사용될 수 없는 설문지를 제외한 270부가 본 조사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의 문항은 일반적 특성 4문항, 취업에 관한 인식은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관, 병원에서 직원채용시 가장 중요한 요건, 희망연봉, 인턴사원 근무기회에 대한 의견 등의 4문항과 취업시 영향을 주는 요인 12개 문항이었으며, 취업현황은 취업기관과 연봉,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은 직업 만족도, 주요 업무, 치과위생사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 협회가 회원을 위해 힘써야할 분야, 향후 치과위생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문치과위생사로서 교육 희망 분야, 치과위생사의 근무연한 등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취업시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취업에 관한 인식,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 취업현황은 빈도와 백분율로 요약하였고, 취업 여부에 따라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하기 위해 T-검정을 하였다.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Alpha값은 0.653으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 3. 연구성적

###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1과 같다. 연령 분포는 20세-21세가 55.2%로 가장 많았고, 여성이 99.3%이었으며, 출신 학교의 소재지는 대구·부산·경남·경북(32.6%), 대전·충남(28.5%), 서울·경기·인천(22.6%), 전남·전북(10.7%)의 순이었다. 졸업학제는 3년제 95.2%, 4년제 4.8%이었고, 취업자는 60.4%, 미취업자는 39.6%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구 분	내 용	빈 도(N=270)
연령	21세 이하	149 (55.2)
	22세	66 (24.4)
	23세 이상	55 (20.4)
성별	남	2 ( 0.7)

	여	268 (99.3)
출신학교소재지	대구,부산,경남,경북	88 (32.6)
	대전,충남	77 (28.5)
	서울,경기,인천	61 (22.6)
	전남,전북	29 (10.7)
	강원	13 ( 4.8)
	무응답	2 ( 0.7)
졸업학제	3년제	257 (95.2)
	4년제	13 ( 4.8)
취업여부	취업	163 (60.4)
	미취업	107 (39.6)

## 2. 취업에 관한 인식

조사대상자의 취업에 관한 인식은 표 2와 같다. 취업희망 기관에 대한 조사에서는 치과병원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율이 4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치과의원(20.4%),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13.7%), 보건직공무원(13.3%), 기타(대학 및 유관기관)(9.3%)의 순이었다.

치과위생사 채용시 병원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건은 성실성(90.4%), 화술(65.6%), 외모(51.5%), 실기능력(48.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연봉은 1600만원-1700만원 미만을 희망하는 율이 39.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500-1600만원 미만(28.9%), 1700만원 이상(20.4%), 1400-1500만원 미만(7.0%), 1300-1400만원 미만(3.3%)의 순이었다.

인턴근무 기회에 대한 의견은 기본급, 정규사원 전환가능성 보장시 고려해보겠다는 응답이 61.9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규사원 전환가능성 보장시 수용한다는 의견이 27.0%이었다.

표 2. 취업에 관한 인식

구 분	내 용	빈도(N=270)
취업희망기관	치과병원	109 (40.4)
	치과의원	55 (20.4)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치과	37 (13.7)
	보건직공무원	36 (13.3)
	기타(대학 및 유관기관 등)	25 ( 9.3)
	무응답	8 ( 3.0)
직원 채용시 요구하는 요건 <sup>+</sup>	성실성	244 (90.4)
	화술	177 (65.6)
	외모	139 (51.5)
	실기능력	130 (48.1)
	학업성적	58 (21.5)
	기타 자격증 소지여부	22 ( 8.1)
	외국어 능력	13 ( 4.8)
	추천서	11 ( 4.1)
희망연봉	13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9 ( 3.3)
	14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19 ( 7.0)
	1500만원 이상 ~ 1600만원 미만	78 (28.9)
	16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106 (39.3)
	1700만원 이상	55 (20.4)
	무응답	3 ( 1.1)
인턴사원근무	보수 등에 관계없이 수용	13 ( 4.8)

기회에 대한 의견	정규사원 전환가능성 보장시 수용	73 (27.0)
	기본급, 정규사원 전환가능성 보장시 수용	167 (61.9)
	정규사원이기 아니기 때문에 안하겠다	4 ( 1.5)
	생각해본 적 없다	10 ( 3.7)

+ 복수응답분석임.

### 3. 취업자의 취업환경

취업을 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현재 취업환경을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치과병원에 취업한 비율이 5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치과병원(34.4%)이었으며,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6.7%, 기타(대학 및 유관기관 등)(0.6%)의 순이었다.

현재 받는 연봉은 1500-1600만원 미만을 받는다는 비율이 3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600-1700만원 미만(23.3%), 1400-1500만원 미만(16.0%), 1300-1400만원 미만(7.4%) 등의 순이었다.

표 3. 취업자의 취업환경

구 분	내 용	빈도(N=163)
취업기관	치과병원	56 (34.4)
	치과의원	<b>95 (58.3)</b>
	보건직공무원	-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11 ( 6.7)
	기타(대학 및 유관기관 등)	1 ( 0.6)
	무응답	-
연 봉	1700만원 이상	9 ( 5.5)
	16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8 (23.3)
	1500만원 이상 ~ 1600만원 미만	<b>57 (35.0)</b>
	14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26 (16.0)
	13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12 ( 7.4)
	1300만원 미만	11 ( 6.7)
	무응답	10 ( 6.1)

### 4. 취업여부에 따른 취업 선택시 영향 요인

취업 선택 시 영향요인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영향 요인은 직원들간의 인간관계(4.81)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복지혜택1(월차,연차,휴식공간 등)(4.55), 병원규모·시설·근무환경(4.38), 보수(4.31), 복지혜택2(세미나,연수,보수교육참여 등)(4.26), 근무시간(4.24), 결혼 후 근무여부(4.13), 출퇴근거리 및 소요시간(4.10), 성과제도(3.97), 병원의 인지도(3.58), 원장님의 출신학교(2.72), 종교(2.40)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취업여부에 따른 취업 선택 시 영향요인을 비교한 결과 보수, 복지혜택2(세미나, 연수, 보수교육 참여 등), 결혼 후 근무여부, 성과제도의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p<0.05). 보수는 취업자가 4.25, 미취업자가 4.41로 나타나 미취업자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복지혜택2(세미나, 연수, 보수교육 참여 등), 결혼 후 근무여부, 성과제도에서는 취업자가 4.34, 4.24, 4.06 이었으며, 미취업자가 4.14, 3.98, 3.84로 나타나 취업자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 취업여부에 따른 취업 선택시 영향 요인

구 분	합계			취업자			미취업자			p
	N	M	SD	N	M	SD	N	M	SD	
직원들 간의 인간관계	268	4.81	0.44	161	4.81	0.45	107	4.81	0.42	0.918
복지혜택1(월차, 연차, 휴식 공간 등)	268	4.55	0.59	161	4.55	0.63	107	4.55	0.54	0.985
병원규모, 시설, 근무환경	267	4.38	0.63	160	4.37	0.65	107	4.39	0.59	0.762
보 수	266	4.31	0.64	160	4.25	0.66	106	4.41	0.58	0.050
복지혜택2(세미나, 연수, 보수교육 참여 등)	268	4.26	0.75	161	4.34	0.74	107	4.14	0.75	0.036*
근무시간(야간근무 포함)	268	4.24	0.70	161	4.24	0.71	107	4.24	0.68	0.993
결혼 후 근무여부	267	4.13	0.83	160	4.24	0.76	107	3.98	0.91	0.014*
출퇴근 거리 및 소요시간	267	4.10	0.81	160	4.09	0.80	107	4.11	0.83	0.809
성과제도	267	3.97	0.87	160	4.06	0.84	107	3.84	0.91	0.042*
병원의 인지도(유명도)	267	3.58	0.78	160	3.64	0.76	107	3.48	0.81	0.088
원장님의 출신학교	266	2.72	0.91	159	2.69	0.91	107	2.77	0.92	0.515
종 교	267	2.40	1.08	160	2.38	1.11	107	2.43	1.05	0.720

\* p<0.05

#### 5.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치과위생사의 주된 업무에 대한 복수 응답 질문에 응답자의 92.6%는 구강병 예방업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환자관리업무 71.5%, 구강보건교육 업무 66.3%, 치과진료협조업무 46.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직업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48.9%가 만족한다, 32.6%가 만족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응답하여 응답자의 81.5%가 치과위생사의 직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73.3%는 치과위생사가 인정받기위해 자기 개발에 더욱 투자를 해야한다고 하였으며, 협회에 가입하여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응답이 11.9%이었다. 향후 협회가 힘써야 할 분야는 회원의 권익보호라고 응답한율이 62.2%로 가장 많았으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보급 16.3%, 국제교류 10.7%의 순이었다. 향후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전문직업으로 지금보다 발전할 것이라고 응답한율이 74.3%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업으로 최고가 될 것으로 응답한율이 15.7%이었다. 앞으로 전문치과위생사로서 희망하는 교육 분야는 환자관리(서비스, 매너 등) 33.3%, 임플란트 28.9%, 심미관련(교정, 보철, 미백) 18.9%의 순이었다. 치과위생사의 근무 연한은 하고 싶을 때까지라고 응답한율이 75.9%로 가장 많았다.

표 5.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

구 분	내 용	빈도 (N=270)
치과위생사의 주 업무*	구강병 예방업무	250 (92.6)
	환자관리업무	193 (71.5)
	구강보건교육 업무	179 (66.3)
	치과진료협조업무	126 (46.7)
	병원관리업무	18 ( 6.7)
	공중구강보건활동 업무	18 ( 6.7)
	치과경영지원업무	10 ( 3.7)
직업에 대한 만족	만족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88 (32.6)
	나름대로 만족한다.	132 (48.9)
	그저그렇다	19 ( 7.0)

	처음 입학했을 때보다는 만족도가 떨어진다.	28 (10.4)
	불만족스럽다.	3 ( 1.1)
인정받기 위해 필요사항	자기 개발에 더욱 투자를 해야 한다.	198 (73.3)
	협회에 가입하여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2 (11.9)
	직업을 알리는 홍보사어에 주력해야 한다.	26 ( 9.6)
	학력수준을 높여야 한다.	8 ( 3.0)
	선진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4 ( 1.5)
	기타	2 ( 0.7)
협회 노력 분야	권익보호	168 (62.2)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보급	44 (16.3)
	국제교류	29 (10.7)
	홍보	12 ( 4.4)
	취업정보제공	10 ( 3.7)
	회원간의 친목도모	6 ( 2.2)
	기타	1 ( 0.4)
직업 인식 예상	전문직업으로 지금보다 조금 더 발전할 것이다	199 (74.3)
	전문직업으로 최고가 될 것이다	42 (15.7)
	지금과 같을 것이다	12 ( 4.5)
	현재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하락할 것이다	11 ( 4.1)
	잘 모르겠다	4 ( 1.5)
교육 희망 분야	환자관리	90 (33.3)
	임플란트	78 (28.9)
	심미관련	51 (18.9)
	치주관련	16 ( 5.9)
	전산 및 치과관련 정보화	24 ( 8.9)
	기타	6 ( 2.2)
	치과기공과정	5 ( 1.9)
근무연한	하고 싶을 때까지	205 (75.9)
	연령제한	33 (12.2)
	출산 전까지	13 ( 4.8)
	결혼 전까지	8 ( 3.0)
	임신 전까지	6 ( 2.2)
	기타	5 ( 1.9)

+ 복수응답분석임.

#### 4. 총괄 및 고안

오늘날 현대사회는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산업사회로서 각 분야별로 분업화된 전문기술을 소지한 전문직종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치과위생사라는 직업도 치과보건의료기관이라는 특수한 조직에 종사하면서 국민구강보건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치과위생사에게 필요한 능력도 과거와 같이 단순한 기술이나 기능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것에서부터 예방, 교육, 대인관계기술까지를 포함하는 등 경영의 동반자로서의 역할로 폭넓게 전환이 되는 등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변화되고 있으며 의료기관간 인력확보경쟁도 심해

지고 있다<sup>8)</sup>. 세계보건기구(WHO)는 구강보건진료를 생산하는 요소 중에서도 구강보건인력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지적하였다<sup>9)</sup>. 따라서 구강보건인력중의 하나인 치과위생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치과위생사 스스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함으로써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일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sup>10)</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치과위생사에게 올바른 직업관을 심어주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소유한 구강보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치과위생사면허 국가시험을 치룬 예비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취업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취업에 관한 인식은 표2와 같이 치과병원 40.4%, 치과의원 20.4%,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13.7%, 보건직공무원 13.3%의 순으로 대부분 임상기관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김과임의 연구에서는 개인치과(25.7%), 종합병원(25.1%), 보건(지)소(22.0%)의 순으로 보고되었고, 황 등<sup>7)</sup>의 연구에서 보건직 공무원을 희망하는율이 28.2%로 치과의원을 희망하는율(10.5%)보다 높게 조사된 결과와 차이가 있다. 예비치과위생사의 경우 졸업을 눈앞에 둔 시기이기 때문에 취업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치과위생사가 가장 많이 취업해 있는 치과병·의원 등의 임상기관을 희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병원에서 치과위생사를 채용할 경우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건에 대하여 복수응답을 실시한 결과 성실성(90.1%), 화술(65.3%), 외모(51.9%), 실기능력(48.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황 등<sup>7)</sup>의 성실성(47.0%), 외모(16.0%), 실기능력(15.9%)의 순으로 조사된 결과와, 한<sup>11)</sup>의 치과의사를 대상으로한 연구결과에서 성격, 말씨·태도를 중요시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 치과의사나 예비치과위생사 모두 성실성과 태도를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근무 기회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88.9%가 정규사원으로 전환가능성 보장시 수용한다고 응답하여 인턴근무에 대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각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인턴사원을 모집할 때 인턴근무시의 근무평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평가결과를 정규직채용에 반영한다면 좀 더 많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취업자의 취업환경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취업한 기관은 치과의원(58.3%)이었고, 연봉은 1500-1600만원을 받는 율이 35.0%로 가장 많았으며, 희망한 율을 없었으나 취업자의 6.1%는 1300만원 미만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7년)<sup>12)</sup>의 자료에 의하면 치과위생사의 월평균 급여는 149.8만원이라고 보고되어 있다. 이는 타 직종 의료기사에 비하여 가장 낮은 수준으로 치과위생사의 임금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sup>13)</sup>, 신<sup>14)</sup>의 연구는 급여의 만족도가 높은 군에서 업무 만족도도 높다고 보고하였고, 류 등<sup>15)</sup>도 이직 원인 중 임금관련사항(29.2%)이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의 연봉이 1300만원 미만에서 1700만원 이상까지 범위가 넓게 분포되어 개인간 또는 지역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추측되었다. 지역간 임금격차와 저임금은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이직율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치과위생사의 급여수준의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취업 선택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직원들간의 인간관계가 4.81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복지혜택1(월차,연차,휴식공간 등)(4.56), 병원규모·시설·근무환경(4.37), 보수 (4.32), 복지혜택2

(세미나,연수,보수교육참여 등)(4.26), 근무시간(4.25), 결혼 후 근무여부(4.14), 출퇴근거리 및 소요시간(4.10), 성과제도(3.97), 병원의 인지도(3.57), 원장님의 출신학교(2.71), 종교(2.4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황 등<sup>7)</sup>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직원들 간의 인관관계가 취업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sup>10)</sup>의 연구결과 이직경험자의 경우 치과의사와 불편한 인간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합당하지 못한 대우라고 응답하여 취업 선택 시에도 직원들간의 인관관계가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이직요인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의 취업 선택 시 영향요인 중 보수, 복지혜택(세미나, 연수, 보수교육 참여 등), 결혼 후 근무여부, 성과제도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 보수의 경우 미취업자(4.41)가 취업자(4.25)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였고, 복지혜택(세미나, 연수, 보수교육 참여 등), 결혼 후 근무여부, 성과제도의 경우 취업자(4.34, 4.24, 4.06)가 미취업자(4.14, 3.98, 3.84)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 전에는 보수가 취업선택의 중요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장기적인 자신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복지혜택(세미나, 연수, 보수교육 참여 등)과 결혼 후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결혼 후 근무여부를 또한 일을 하면서 자기성취감을 줄 수 있는 성과제도에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치과위생사의 주된 업무에 대해 구강병 예방업무(92.6%), 환자관리업무(71.5%), 구강보건교육업무(66.3%)는 50%이상의 응답율을 보였으나, 병원관리 및 치과경영지원업무(10.4%)와 공중구강보건활동업무(6.7%)는 낮게 조사되었다. 황 등<sup>7)</sup>의 연구결과 예방업무가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중구강보건 업무 5.0%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최근 공공분야에서의 치과위생사들의 업무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중구강보건 업무와 활동에 대한 명확한 교육과 지속적인 실습을 통하여 공중구강보건 분야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인식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48.9%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만족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32.6%로 81.4%가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향후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서도 전문직업으로 지금보다 발전할 것이라고 응답한율이 74.3%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으로 최고가 될 것으로 응답한 율이 15.7%이었다. 치위생과 재학생들의 학과만족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63.6%<sup>16)</sup>, 65.9%<sup>17)</sup>, 46.6%<sup>18)</sup>로 보고되었던 결과에 비해 미래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서 치위생과에 재학중일 때보다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이 더 좋아진 것으로 사료되며, 직업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가지게하여 향후 직장생활에서도 유익하게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응답자의 73.3%는 치과위생사가 인정받기위해 자기 개발에 더욱 투자를 해야한다고 하였으며, 대한치과위생사협회(협회)에 가입하여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응답이 11.9%이었다. 향후 협회가 힘써야 할 분야는 회원의 권익보호라고 응답한 율이 62.2%로 가장 많았으며, 문 등<sup>19)</sup>의 치과위생사 대상 연구에서 권익보호와 지식과 기술의 보급을 원하고 있다는 결과와 같았다. 2006년 현재 치과위생사 면허 취득자 중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가입자는 62.6%<sup>20)</sup>에 불과하다. 이렇듯 협회 가입자가 적은 이유 중의 하나는 의료기사는 의료인과는 달리 의무가입 조항이 없기 때문에 치과위생사 면허 취득자들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만이 가입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협회가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회원 한사람 한사람의 힘이 필요하므로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협회에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는 선가입제도를 마련하여 예비치과위생사들의 협회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방법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협회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회원확보뿐만 아니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의의와 활동내용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함으로써 예비치과위생사들이 협회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치과위생사의 근무 연한은 하고 싶을 때까지라고 응답한율이 75.9%로 가장 많았으며, 이 결과는 문 등<sup>19)</sup>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94.2%)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2006년 근무환경조사 결과<sup>15)</sup>에 따르면 치과위생사의 평균연령은 27.62세, 총근무경력은 5.37년으로 직업수명이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치과위생사의 연령이나 근무경력이 적고, 기혼자의 비율이 적은 것은 치과위생사의 결혼 및 출산에 관한 문제<sup>21)</sup>, 기혼 치과위생사가 지니는 자녀 양육문제, 가사노동의 부담의 이유에 의한 조기퇴직 등의 이유<sup>10)</sup> 때문이라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6년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실시한 예비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전국적으로 3개의 교육장에 제한되어 실시된 교육에 거리상 참가하지 못한 대상자들이 많아 전체 예비치과위생사의 취업에 관한 의식을 파악하기에 한계점이 있어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 5 결론

치과위생사 면허 국가시험을 치른 예비치과위생사의 취업에 관한 의식을 조사함으로써 전문직업인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소유한 구강보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06년 1월 15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서울, 대전, 부산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한 예비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법으로 실시하였다. 총 289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그 중 분석에 사용될 수 없는 설문지를 제외한 262부를 조사·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40.4%는 치과병원에 취업하기를 희망하였고, 채용 시 병원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건으로는 성실성(90.1%)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봉은 1600 - 1700만원 미만(39.3%)을 희망하는 율이 높았다. 인턴근무 기회에 대해서는 61.9%가 기본급, 정규사원 전환가능성 보장시 수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취업자의 취업환경을 조사한 결과 치과의원에 취업한 율이 58.3%로 가장 높았으며, 1500 - 1600만원 이하를 받는 율이 35.0%로 가장 많았다.

셋째, 취업 선택 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직원들간의 인간관계가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복지혜택1(월차, 연차, 휴식공간 등)이 4.56이었다. 취업여부에 따른 취업 선택 시 영향요인 중 보수, 복지혜택2(세미나, 연수, 보수교육 참여 등), 결혼 후 근무여부, 성과제도의 항목에서 취업자와 미취업자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

넷째, 치과위생사의 직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치과위생사의 주된 업무는 구강병 예방업무(92.6%), 환자관리업무(71.5%), 구강보건교육업무(66.3%), 병원관리 및 치과경영지원업무(10.4%), 공중

구강보건활동업무(6.7%)순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48.9%가 만족한다, 만족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32.6%로 81.5%가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과위생사로 인정받기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73.3%가 자기 개발에 더욱 투자해야한다고 하였으며, 향후 협회가 힘써야 할 분야로는 회원의 권익보호가 6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후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전문직업으로 지금보다 발전할 것이라고 응답한율이 69.2%로 가장 많았고, 전문치과위생사로서 희망하는 교육 분야는 환자관리(서비스, 매너 등) 33.3%, 임플란트 28.9%, 심미관련(교정, 보철, 미백) 18.9% 순으로 조사되었다. 근무연한으로는 하고 싶을 때까지라고 응답한율이 75.9%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 참고문헌

1. 이인학. 전문대학생의 직업관과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2. 강제태. 진로지도 워크북. 서울: 교육과학사; 2000:39.
3. 강부월, 강제경, 광정숙, 권현숙 외 14인. 치위생학개론. 3판. 서울: 고문사; 2003:119-120
4. 이규향, 이영복. 간호사회학: 간호윤리, 직업적 조정. 서울: 수문사; 1984:12-13
5. 김숙향. 치과위생총론. 서울: 의치학사; 1992:1.
6. 강부월.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경험과 치위생직에 대한 태도변화연구. 동남보건대학논문집 1997;14(1):319-332
7. 황윤숙, 박정란, 정재연, 최은정.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취업에 관한 의식조사. 한양여자대학논문집 2006;30:501-520
8. 강부월. 치과위생사의 조직몰입과 선행 및 결과변수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영향. 한국구강건강증진학회지 2000;1(1):1-22
9. 문혁수. 치과의사수급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4;18(1):339-366
10. 정재연. 치과위생사의 이직 및 직무활동에 관한 조사 연구. 치과연구 1998;43(2):47-57
11. 한경순. 치위생과 학생의 직업의식에 관한 연구. 가천길대학논문집 2001;29:447-489
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래의 직업세계 2007.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344-357
13. 최은영.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 및 조직 애착에 관한 연구-서울 · 경기 · 인천 지역 치과위생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4. 신민우.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와 피로자각증상. 충남대학교 보건 · 바이오산업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5. 류정숙, 김영남, 한경순.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 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7;7(2):135-151
16. 한경순, 한수진, 최준선. G 대학 치위생과 학생들의 현장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 연구. 대한치과위생학회지 2005;7(1):113-126
17. 박일순, 이경희. 전문대학 치위생과 학생의 학과선택 및 실습실에 대한 만족도.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7;6(4):349-359
18. 김진수, 임근옥. 일부 치위생과 재학생의 학과선택 만족도 및 취업의식변화.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6;6(2):103-113

19. 문경숙, 황윤숙, 김영경, 정재연. 치위생사의 근무지별 업무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2;2(1):63-83

20.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인력 현황 내부자료, 2006.

21. 문희정, 김설악. 치과위생사의 직업만족에 관한 연구. 대한치과위생학회지 2001;3(1):10

## A Survey on Preliminary Dental Hygienists' Senses of Employment

Su-Jin Han, Sun-Mi Lee<sup>1</sup>, Mi-Hee Lim<sup>2</sup>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achon University of Medicine and Science, Incheon City,  
Yeonsu-Gu, 406-799, Korea*

<sup>1</sup>*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ongnam Health College 937 Jeongia-Dong, Jangan-Gu, Suwon,  
Gyeonggi-Do, 440-714, Korea*

<sup>2</sup>*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uwon Women's College 62, Suwonyeodae-gil, Omokcheon-dong,  
Gwonseon-gu, Suwon, Gyeonggi-do, Korea*

### ABSTRACT

keyword. Preliminary Dental Hygienist, occupation, employment, employment circumstance, Dental Hygienis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survey on the senses that preliminary dental hygienists have on employment, who applied for the National Dental Hygienist Examination, so that it could provide a basic reference required for fostering good human resources specializing in oral health with a sense of mission and responsibility as professional. To meet these goals,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participants in a refresher education meeting for preliminary dental hygienists across three major regions(Seoul, Daejeon and Busan), which was held by the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KDHA) on Jan. 15, 2006. Total 289 sheets of questionnaire were collected, and 262 sheets except invalid or incomplete ones were used for examination and analysis. As a result, this study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t was found that 40.4% respondents wanted to be employed in dental clinic or hospital. Most respondents(90.1%) answered that faithfulness is most valued as prerequisite qualification for employment in hospital, and highest percentage of respondents(39.3%) wanted to earn 16 to 17 million Korean won annually. For internship opportunities, 61.9% respondents replied that they could willingly accept the internship, provided that basic pay and switchover to regular employee are all assured.

Second, as the results of survey on employment circumstances around respondents, it was found that most respondents(58.3%) were employed in dental clinic or hospital, and highest percentage of respondents(35.0%) earned 15 to 16 million Korean won.

Third, it was found tha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employees had most significant effects(4.81) on selection of employment, which was followed by in-house welfare benefits 1(month-

ly/annual vacation, resting room, etc; 4.56). For possible influential factors on the selection of employment depending on whether employed or not,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y, welfare benefit 2(seminar, orientation, refresher training opportunities, etc), post-wedding continued employment and merit system between employees and non-employees( $p < 0.05$ ).

Fourth, the survey on respondents' occupational senses of dental hygienist showed that major tasks of dental hygienists were represented by oral disease prevention(92.6%), case management(71.5%), oral health education(66.3%), hospital/clinic management and dental management support (10.4%) and public oral health activities(6.7%) respectively.

For job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almost half respondents(48.9%) showed satisfaction at their job and 32.6% felt satisfied at and proud of their job. That is, majority of respondents(81.5%) felt satisfied at their job as dental hygienist. For follow-up requirements to qualify for dental hygienists, it was found that 73.3% felt it necessary to give more investments to self-development. 62.2% respondents considered protection of membership's rights as one of future assignments that KDHA should be more committed to.

For future social awareness about dental hygienists as occupation, 69.2 % respondents expected that they would be better developed and treated as professional. And desired training courses as a part of qualification for professional dental hygienists were represented by case management (services, manners, etc; 33.3%), implant(28.9%), esthetics(correction, prosthesis, whitening; 18.9%) and so on. For an item on working years, it was noted that 75.9% respondents would keep working as dental hygienists as long as they could.